

# 'SOC 호남홀대론' 여·야 공방전

### “전남도 요구 반영비율 40~50% 수준...푸대접”

### “홀대·우대없어...정치쟁점화 되는 것 아쉬워”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 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 호남홀대론에 대한 여·야의원간 신경전 양상의 집이가 이어졌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호남홀대, 푸대접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홀대나 우대가 없었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 의원은 조용히 표문을 열었다.

소 의원은 “지난 (박근혜)정권 시기에 호남 예산 불명등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차별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대 수준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고 답했다.

이에 소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호남고속철과 흑산도 공항건설 예산에 많은 신경을 썼다.

불용예산은 소진해야 다음에 예산을 주는데, 호남고속철 노선이 확정되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 흑산공항 역시 환경영향평가가 미뤄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엔 지원될 것이다”며 사실상 ‘호남홀대’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이용호(전북 남원 임실 순창)의원과 권은희(광주 광산)의원의 시각은 달랐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예산을 전체적으로 20% 줄였는데, 전남도가 요구한 SOC 반영비율이 40~50% 수준이라면 푸대접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권 의원도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 3000억원을 요구했지만, 154억원만 반영됐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요구액도 15.1%인 455억원에 그쳤다”며 “지난 정권SOC예산만 보면 박근혜정부보다 1800억원 덜 받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오전 4층 왕인실에서 열리고 있다.

영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지난 (박근혜)정부 때 특정지역 우대로 인해 호남 소외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남의 낙후,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적 방향 설정때문에 차별소외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의원은 “(SOC예산) 별 차이가 없는데도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다.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이 확정이 안됐

데, 노선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영)의원은 “전체적 (SOC예산) 변화가 있었다.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그런 취지에서 홀대나 우대가 없었다. 호남홀대, 탈호남, 영남홀대라는 말이 다시 부활해 정치쟁점화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동구, 금남로공원 지명변경 의견수렴 간담회

광주 동구는 오는 28일 금남로37에 위치한 '금남로공원' 지명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남로공원은 조선시대 금남군(鎭南君) 정충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금남로로 명명된 도로명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난 2006년 준공 시 '금남로공원'으로 명명했고 현재까지 십여 년 넘게 그 이름으로 불려왔다.

그러다 올해 5월 광주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이병열)가 4·19정신을 기리기 위해 '금남로공원'을 '금남로·19공원'으로 지명변경 요청했다.

## 서구,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합시다

광주 서구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시간 홍보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간선도로 등 일부 지역에서 배출시간제 외에 길거리에 내놓은 쓰레기봉투로 인해 악취, 미관저해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

서구는 현재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가 진 이후 쓰레기를 배출하여 거리의 미화 상태에 대한 이웃 간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해가 뜨기 전에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 차량이 모두 수거해 도시미관 및 시가지 청결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 남구, 문화교육 공동체 조성위한 학부모 포럼

광주 남구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7일 제3회 남구 학부모 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제3회 남구 학부모 교육 포럼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정책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교육특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학부모를 비롯해 지역주민, 교육정책 분야 전문가 등 약 2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 북구, 마을 이야기 함께 나누는 행복마을 축제

광주 북구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11개 행복마을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행복북구 마을동 이야기'를 주제로 '2017 릴레이 행복마을 축제'가 펼쳐진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우산동 사랑어린이 공원에서 야외골렘복합센터 주관으로 공예·사진 전시, 체험, 나눔장터 등 '우산 밤 축제'를 시작으로 건국동 꿈틀배울터 '꿈틀이 장터', 임동 희망나눔센터 '행복한 두드림~임동을 울려봐', 석곡동 반디마을행복센터 '나 이제까지 잘 살았어' 등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서 용봉동 용봉골렘복합센터 '용봉동, 필리핀을 만나다', 동림동 동림골렘복합센터 '소통하는 모樂모樂 동림동'(10.26), 중앙동 북새통 '도박이 접방에 빠진 날', 일곡동 소피골렘복합센터 '소피소피'(10.27), 문흥동 세어하우스상상 '북문시장 한평장터', 문화동 소곤소곤사당 '추억을 찾아 운동회'(10.28), 운암동 황계골렘복합센터 '황계 정자씨네 수다방'(10.30)을 주제로 마을축제가 릴레이로 개최된다.

## 광산구, 일자리 페스티벌 27일 개최

'광산구 일자리 페스티벌'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수완지구 롯데 아울렛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일자리 페스티벌은 광산구, 광주광산고 용복지+센터, 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함께 진행한다.

행사장에서는 광주지역 기업 20개가 부스를 차리고 현장 면접으로 직원을 채용한다. 또 40개 기업이 직종과 대우 등을 담은 구인공고를 게시한다.

일자리 페스티벌은 △기업채용관 △좋은일자리관 △청년일자리 페스티벌 △사회적경제 홍보관 △직식체험관 5개 분야로 진행된다.

임행택 기자

## 전남 마을기업 상품 디자인으로 날개달다...대박 예감

### 네이밍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사업 성과물 기대 ↑

'먹을수록 예뻐지는 참종구마' '가문의 영광 아이스크림'.

전남도가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월 지원한 '상품 네이밍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사업'의 성과물로 '대박'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 '땅 끝햇살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아이스크림과 구마발랭이 등이 신규 브랜드 '가문의 영광'과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패키지 개발을 완료한 후 모바일 유통플랫폼 카카오톡에 입점해 판매를 시작했다.

조만간 네이버 스토어팜, 우체국쇼핑몰 등에도 입점이 예정돼 안정적으로 온라인 판매·유통 채널을 확보할 전망이다.

'상품 네이밍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은 재정과 경영 환경이 열악한 마을기업의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네이밍, 브랜드디자인 포장디자인 개발 등과 함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성장 가능성이 있는 31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월 까지 현장 방문, 품평회 등을 통해 기업 여건과 요구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으로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했다.

특히 디자인 및 마을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해 기업별 전남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자문단은 사업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소비 환경에 맞춘 디자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임반수로 제조한 장흥특산물 '햇콩마루 세트' 등을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장흥식품은 이번에 개발된 패키지 디자인 상품으로 LA 상설판매장에 입점, LA 한인축제 등 판촉행사에 참여해 3만 달러의 판매실적을 거두는 등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호곡발효마을(주)의 발효초 역



땅끝햇살한영농조합법인 아시리고구마 포장지.

시 고급화 전략에 맞춰 개발된 패키지 상품으로 백화점 신규 입점 기회를 얻는 등 사업이 완료된 지 불과 1달여 만에 연이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의 지원사업을 통해 디자인과 상품력을 강화한 마을기업들은 '차별적인 디자인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며 이후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순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관광장은 "마을기업 등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의 가치를 대외홍보 마케팅에 손색없는 수준으로 높이고 디자인 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보해양조 "천연암반수

### 수질 검사 우라늄 無"

### 주류·음료 소비자에 결과 공개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부 생수에서 우라늄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해양조(주)는 24일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지하 암반수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학동기기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하 암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원이 시료 2 점을 검사한 결과 'NDXNa Detect' 검출한계 미만'로 나타났다. 이는 '보해양조 측은 소비자들이 주류와 음료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이번에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며 수질관리를 더욱 엄격히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가 만드는 제품은 우라늄 청정지역인 장성의 암반수로 만들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 고흥·구례·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 湖南新聞

###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7년 196 상속한정승인사 망자: 조규남(460211-166598) 최후주소: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이길 6-3동 40호(동이리, 대영리)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진도읍성내리 28-1

위 망 조규남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해당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7년 10월 25일

공고인: 조성호, 임인성, 조인영, 주 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길 30, 9동 101호(성내리, 대영리) 한정승인수리일: 2017년 10월 20일 공고기간: 2017. 10. 25~2017. 12. 26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건설면허신청 ■ 기장대리
- 임대상속증여 ■ 법인설립
- 기업집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대월동 948 산업용대우동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 지중·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